

위턱·아래턱 차이가 심한 부정교합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건강 바로 알기 악교정 수술

조선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정서린 교수

비뚤비뚤한 치열, 돌출된 입, 거꾸로 물리는 치아, 앞으로 나온 턱(또는 뒤로 들어간 턱), 비대칭인 얼굴 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교정 치료를 고민한다. 평소 생각만 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교정치료 상담을 하러 치과에 갔다가 '악교정 수술'을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악교정 수술 대상과 적절한 수술 시점 및 방법
악교정 수술이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악교정 수술은 '턱교정 수술'이라고도 하며, 턱뼈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을 말한다.

교정치료는 턱뼈 내에서 치아를 이동시켜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 교정적인 치아 이동만으로 맞출 수 없을 만큼 위턱과 아래턱의 차이가 심한 부정교합을 갖고 있는 일부 환자의 경우 악교정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교정치료의사에게서 처음 악교정 수술 필요성을 듣게 되는데, 이 때 방사선 사진을 통한 뼈에 대한 분석, 위아래 치아들의 분을 떠서 하는 3차원 치아 공간에 대한 분석, 안면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악교정 수술 동반 교정치료 부작용 적고 치료 결과에 만족

턱뼈 성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아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세우면서 악교정 수술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악교정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아래턱은 위턱보다 더 늦게까지 자라며,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늦게까지 자라는 경향을 보인다.

악교정 수술은 턱뼈의 성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잔여 성장이 남아있는 경우 성장이 완료된 후 진단했을 때 보다 치료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치료 후 재발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치료결과와 안정적인 유지가 어려운 것도 이유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악교정 수술은 성인이 된 후에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개인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시기는 진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보통은 수술 전에 '술전교정치료'를 하여 수술 후 교합이 잘 맞도록 하고, 수술 후에 다시 '술후교정치료'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 단순히 얼굴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턱뼈와 치아의 이동으로 인해 치아의 맞물림 및 턱관절 운동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교정의사와 구강악안면 외과의사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교정치료 상담을 하면서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고 여겨지는 경우, 많은 분들이 악교정 수술이 안전한지, 부작용이 없는지 궁금해 한다.

전신마취 후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위치를 골절단술과 고정을 통해 개선시키는 수술인 만큼 위험성이 미미하다 하기는 어렵다.

부작용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는 전신 마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사 수행과 구강악안면 외과의사의 풍부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수술 후 변화를 예상할 수 있고, 이것을 치료계획에 반영하여 악교정수술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으로 주저하기 보다는 직접 치과를 찾아 현재 본인의 구강악안면 영역의 기능적·심미적 요소들을 충분히 평가하고 종합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필요시 악교정 수술을 시행한다면 수술없이 무리하게 교정치료만 시행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만족스러운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악교정 수술은 턱뼈의 성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 조선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정서린 교수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전남대병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4회 연속 1등급

심평원, 전국 839개 의료기관 실시
인력·장비 최고 시설 보유기관 인정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4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6개월간 외래에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 한 만 18세 이상의 환자가 있는 전국 8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이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혈액투석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구조·과정·결과 3개 부문에 총 13개 지표로 시행됐으며, 전남대병원은 모든 지표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2년·2013년·2015년에 이어 이번까지 4회 연속 최우수 등급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가산금도 받았다.

혈액투석은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의



전남대병원 전경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통해 혈액의 노폐물을 인공적으로 정화시켜주는 것이다.

혈액투석 환자는 뇌졸중·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치료기간 중 삶의 질 문제가 커 투석전문가로부터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를 정기적으

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적절한 혈액투석을 행하는 의료기관이 좋은 의료기관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 사업

전남대병원, 180억원 지원받아 4년간 추진

피부과 김성진 교수팀 최종 선정

연 1000억 매출·800명 고용 효과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이 미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 사업을 1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년간 추진한다.

전남대병원 피부과 김성진 교수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광주테크노파크·광주교령친화산업지원센터·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코스메디케어 산업은 임상적 효과와 효과가 검증된 고기능성 화장품을 일컫는 코스메슈티컬의 소재 및 제품, 첨단기술 융복합 맞춤형 뷰티기기를 개발해 개인 맞춤형 기능성 뷰티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신개념 산업이다.

특히 20~30대 연령층의 소비 확대와 기능성 화장품 주요 소비층인 40대 이상의 수요 급증으로 국내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향후 4년간 총 사업비 180억원(국

비 80억원, 광주광역시 80억원, 민간부담 20억원)을 들여 추진되며, 수요자 발굴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이 사업에서 임상 유효성 평가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실증지원과 의료 빅데이터 연계한 시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코스메디케어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적으로는 300여개의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융합기업을 육성해 연 1000억원대의 매출과 신규 고용창출(800명)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이끌어갈 김성진 피부과 교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화장품 기업들의 공동시험생산시설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차별화된 화장품 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